

보아라! 불심을

포항시장 종교편향 발언 규탄 '범불교대회' 현장



“헌법위반! 직권남용! 정장식 포항시장 사퇴하라”
12월 15일, 3만여 불교도민의 합성이 하루 종일 포항시를 뒤덮었다.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편향 정책을 규탄하고 퇴진운동을 펼치기 위한 ‘사회와 종교화합 실현을 위한 범불교대회’가 포항시 종합운동장 앞 광장과 포항시청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불교사암연합회를 비롯해 조계종 대구경북 5개 본사와 태고종, 천태종, 법화종, 진각종 등 종단을 초월한 대구 경북지역의 불자 3만여 명이 운집했다.
포항 종합운동장 인파로 범불교대회를 알리는 포스터를 앞세우고 대형버스 500여대가 대거 진입했다.
정 시장의 종교편향 행위가 시작된 것은 5월 29일~6월 2일 열린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에 있었다. 명예준비위원장을 맡은 정 시장이 ‘포항 성시화’ ‘포항시 재정 1%를 선교에 사용’ 등의 시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10월 11일 포항불교사암연합회는 정 시장의 공개사과와 홀리클럽 탈퇴를 요구하며 10월 27일 종교편향대책위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정 시장이 불교계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고 종편위는 12월 15일 범불교대회 개최를 확정했다.
오전 11시, 사회자의 합성에 연합품물패가 중앙으로 나서



정장식 포항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불자들이 포항경찰서를 방문,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

로 범불교대회 2부 행사가 시작됐다. 비구니 스님들이 포항시청정문 앞으로 나섰고, 스님들과 불자들은 엄숙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정장식 포항시장의 퇴진을 위해 모든 힘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종편위는 “종교편향적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장식 포항시장의 퇴진을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장식 포항시장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여기저기서 “정장식은 퇴진하라”, “정장식은 나와라”라는 소리가 빗발쳤다. 그러나 1000여명의 전경들에게 가로 막혀 끝내 시청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시청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고, 시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스님들이 몇 차례 해산권고에 나섰으나 불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경 이규백 포항경찰서장이 “아무런 사고없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대회를 진행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해산권고에 나섰다. 이에 종편위 스님들이 다시 나섰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기폭제가 되었으며, 우리의 뜻을 만천하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라는 스님들의 설득으로 산화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날 대회는 오후 5시 회향했다.
포항=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사부대중 3만여명 운집... 퇴진위한 모든대응 천명

북과 평과리로 한바탕 심명을 울리자 불자들의 합성이 종합운동장을 찢어찌렁 울렸다.
“여러분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낮12시, 종편위 집행부가 박찬 감동사의 말을 전하며 1부 ‘다짐의 장’이 시작됐다. 오늘의 행사를 알리는 ‘고유문’을 읽은 뒤 사공정규 사무총장이 포항시장 종교편향정책 사안의 성격규명에 나섰다.
사공정규 사무총장은 정시장의 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 의무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어긴 행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20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 공금을 유용하려는 행위, 개신교를 믿지 않는 포항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 경천 스님은 대회사로 통해 포항시장장 홀리클럽 정립 멤버 23명,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공원식 시의회의장에게도 조속한 탈퇴를 촉구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격려사로 통해 “이런 엄청난 사건은 처음 있는 일로 2천만 불자가 뭉쳐야 한국불교가 산다”며 박수와 구호를 통해 이날행사에 참가한 3만여 불자의 자긍심을 높였다.
이어 청와대와 각정당, 시민들에게 전하는 호소문과 한나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바라는 촉구문이 발표됐다. 대회

로 범불교대회 2부 행사가 시작됐다. 비구니 스님들이 포항시청정문 앞으로 나섰고, 스님들과 불자들은 엄숙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정장식 포항시장의 퇴진을 위해 모든 힘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종편위는 “종교편향적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장식 포항시장의 퇴진을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장식 포항시장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여기저기서 “정장식은 퇴진하라”, “정장식은 나와라”라는 소리가 빗발쳤다. 그러나 1000여명의 전경들에게 가로 막혀 끝내 시청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시청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고, 시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스님들이 몇 차례 해산권고에 나섰으나 불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경 이규백 포항경찰서장이 “아무런 사고없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대회를 진행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해산권고에 나섰다. 이에 종편위 스님들이 다시 나섰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기폭제가 되었으며, 우리의 뜻을 만천하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라는 스님들의 설득으로 산화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날 대회는 오후 5시 회향했다.
포항=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편향적 행태에 분노한 대구경북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시청으로 들어가려 하지 경찰이 막고 있다.

금강경의 주장자 84,000장경의 엔솔로지

빈손도 내려놔라

도서출판 여래. 저자 둔세승. A4size 100% 칼라양장판 867쪽

보면 보인다!?

불교사상 처음 금강경을 의지해서 그동안 배우고 탁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둔세승 (세간을 등진 출가자)이라는 필명으로 밝힌 4차원적인 삶의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나는 알고있다는 현대인들에게
1,000여편 (세계불교문화유산)의 컬러 이미지와 함께
깨달음으로 이끄는 밀레니엄 화두

연락처 : 02)515-8289
053)744-9009

www.buddhopia.cc



정가 / 상하권 100,000원